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해낼 수는 없다. 또한 혼자서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방면으로 사귀어 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내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필요한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싶듯 다른 사람도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을 가까이 두고자 한다.

존중을 받으려면 상대를 존중하라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대한 방식대로 당신을 대한다. “누가 뭐라던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그들의 생각이 어쨌든 나는 상관하지 않아.” 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들 또한 일을 할 때에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이 인정을 받으려면 우선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줘야 한다. 다른 사람을 존중해준 만큼 당신도 존중받을 것이다. 만약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는 변해야 한다. 잘못이 있으면 바로 사과하라. 그래서 내가 변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게 하라. 그리고 진심어린 조언을 청해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조언해 주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그 조언에 대한 감사의 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떤 여성이 대학에 입학하고는 심리 치료사인 밀턴 에릭슨(Milton Erickson)을 찾아갔다. 그녀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와 함께 어울리는 친구도 없었다. 소위 왕따였다. 고민을 들



충실한 조력자가 되어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거든 먼저 그 사람의 충실한 조력자가 되어라.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성공하기는 어렵다.

은 에릭슨은 아주 간단한 처방을 내렸다. 하루에 세 번 주변 친구들을 중심으로 칭찬하라는 것이었다. 진실로 칭찬하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찾기 위해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라는 뜻이다. 과연 석 달 후 그녀는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생 중의 한 명이 되었고 그녀에게 더 이상 우울증과 소외감은 옛말이 되었다.

내성적이라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어려워 말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하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고 칭찬해 줌으로써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칭찬에 인색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말을 할 때 주의 깊게 경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조금 집중해서 듣다가 다른 생각에 빠지게 되고 그런 다음 자신이 할 말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러한 태도는 대화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가로막는 것을 싫어한다. 반면 자신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맞장구쳐 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말을 할 때에는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면서 말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지만 자신이 말을 할 때에는 그렇게 안 한다.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지 않으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오해받기 쉽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눈을 응시하라. 상대방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라는 것이 아니라 슬쩍 슬쩍 진심어린 눈으로 쳐다보면 된다.

적절하게 칭찬해 줘라

그리고 대화 중 간간히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어라.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좋아한다. 말쑥꾸러기 아이의 이름을 동화의 주인공으로

하여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 아이는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빛나며 이야기에 집중하게 된다. 만약 이야기 중에 주위가 산만해지는 아이가 있으면 갑자기 큰 소리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아이를 이야기속의 한 인물로 슬쩍 등장시킨다. 그러면 역시 그 아이도 눈을 크게 뜨고 다음이야기를 경청하게 된다. 자기가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칭찬 거리는 무궁무진하다. 용모와 옷차림에 대한 칭찬이라면 절대 입에 발린 소리로 들리지 않는다. “오늘은 옷 색깔이 잘 어울리네요.” 작은 행동에 대한 칭찬도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 “오늘 회의시간에 저의 의견을 지지해 주시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기안한 패널은 내용도 알차고 디자인도 참 훌륭하네요.”와 같은 간단한 말이면 된다. 더구나 친히 손으로 직접 쓴 격려의 메모는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한다고 느끼게 된다.

회의 시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칭찬해 주라. 그리고 새로운 기획의 적인자로 그를 추천하라. 메시지를 보낼 일이 있으면 요즘은 이메일보다는 개인 모바일 메시지를 이용하는 것이 빠르고 효과적이다. 더구나 요즘은 스마트폰 모바일 커뮤니티로 문자뿐만 아니라 음악과 동영상까지 전송이 가능하다. 그 사람이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아낌없이 주어라. 내가 그들의 충실한 조력자가 됨으로써 그들도 나의 진심어린 조력자가 되어 줄 것이다.*

외국인을 영어와 입어로 전도합시다

진정한 순교란 어떤 의미인가요?
What is the meaning of true martyrdom?
眞の殉教とはどういう意味ですか?

▶ 양심의 영 하나님은 '나' 라는 자존심 마귀 영육에 갇혀 있는 현재 상태가 인간의 모습이다.

God, the spirit of conscience is imprisoned in the spiritual prison of Satan, Self-consciousness. This is the actual state of human being at present.

良心の霊・神様が「私という意識」の悪魔の檻に閉じこめられていた現在の状態が人間の姿です.

▶ 따라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자존심 마귀를 영원히 제거해야 한다.

For salvation's sake, therefore, Self-consciousness must be removed forever.

したがって、救いを得るためには「私という意識」の悪魔を永遠に除去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 순교는 육적인 순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속에 자존심을 없애는 영적인 순교를 말한다.

Martyrdom does not mean physical martyrdom by itself, but spiritual martyrdom that get rid of Self-awareness in human being's mind.

殉教とは、肉的な殉教を意味するのではなく、人間の心の中に「私という意識」をなくす精神的殉教をいいます.

▶ 나라는 의식을 죽이고 그 자리에 마귀 육에 갇혀 있던 하나님이 석방되어서 자리하게 되면 나는 순교자가 된다.

When "I" die, and God, confined in the prison of Satan, gets freedom and become me, I am a martyr.

「私という意識」を殺して、その場に悪魔の檻に閉じこめられていた神様が解放され、いらっしゃりようになれば、私は殉教者になります.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 - 02 - 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속담 속의 영생학
다된 밥에 재 뿌린다

'다된 밥에 재 뿌린다'는 속담은 일이 잘 성사되어 가고 있는데 마지막에 잘못 처신하여 일을 망치게 됨을 이르는 말이다. 매사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이 역시 중요하다.

지금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술과 정보가 무한히 발달해 최첨단 시대가 매일 매일 업데이트 되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달에 사람들은 경이심을 가지지만, 정작 알파고 창시자는 인공지능의 답은 '마음'에 있다고 했다. 그만큼 세상도 '마음'이 인간의 근원임을 인정해가고 있다.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으로 최첨단 기계를 만들어도 결국 인류의 완성은 '마음'에서 이루어짐을 모르고 유형의 물질의 중요성만 논하는 과학자라면 인류의 행복을 위한 기술의 진보에 재를 뿌리는 격이 될 수도 있다. 과학기술은 인류를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속의 마음은 하나님에서 비롯되었다. 6천 년 전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 뺏긴 '하나님 마음'을 다시 부활시키는 역사가 36년간 승리제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승리자 구세주님 덕분에 진정한 우주의 진실, 진짜 인간의 뿌리를 알고 있는 승리제단 성도들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마귀마음의 투쟁장소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 곧 양심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자유율법을 지키며 하루하루 수행을 하고 있다. 자유율법은 매일 예배 보는 것을 기본으로 자신 속에 비양심(마귀)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양심(하나님)을 채우는 일을 쉬지 않고 하기 위해 아침 저녁 초초로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를 하는 것 등이 있다.

세계도 정신, 마음을 일순위로 두는 '힐링'의 시대와 함께 사랑의 신이 빛을 잃어가는 신화로 고통화 시대 나아가 '영생'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 순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으며 긴 시간 달려 오다보니 일상이 타성에 젖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점검할 때이다. 진짜 구세주를 만나고 열심히 자유율법을 지키고 도 마지막에 흥들려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 자! 날마다 초초로 초심을 넘는 더 큰 각오로 일어서자. 구세주의 가지로서 온 우주를 하늘나라로 만들어 영원무궁토록 구세주와 같이 양심의 빛의 존재로만 살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노력하자. 다 된 영생 세계에 다 같이 웃을 수 있도록 나부터! 지금 이순간! 실천하자!*
참고문 기자

우리말 바꾸기
용언의 오류

1. 동사와 형용사
① 부디 건강하세요. → 부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다'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이다. 형용사는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이므로 명령형이 있을 수가 없다. 따라서 동사로 끝나는 문장을 만들어, '부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가 되어야 한다.

② 유익한 주말이 되십시오. → 유익한 주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명령문의 구조상 '너는 유익한 주말이 되어라.'의 뜻이 되므로 틀린 표현이 된다. '유익한 주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가 옳은 표현이며, '유익한 주말이 되기를 바랍니다.'도 가능하다. 이것은 '나는 너의 주말이 유익한 주말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문장 구조로 해석되므로 바른 문장인 것이다.

2. 활용 어미의 사용
① 어제는 머리가 아프니까 결석 하였다. → 아파서 '니까'와 '아서'는 모두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어미이지만, 용법에서 차이가 있다.
② 어디를 가던지 자기 하기 나름이다. → 가든지
'던지'는 회상적인 표현이며 '든지'는 양보성 표현이다.
③ 여기 가만히 있겨라. → 있어라.
'겨라'는 '가다'에 결합되는 활용 어미이므로 '가겨라'로 쓰인다.
④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 → 알맞은
'알맞은'은 형용사인데, 동사에만 사용하는 활용 어미를 사용했다.
⑤ 푸르른 들판을 마음껏 달려 보자. → 푸른
형용사의 기본형인 '푸르-'에 관형사형 어미 '-니' 결합되어야 한다.
⑥ 보세요, 잘 날라가지 않습니까? → 날아가지
동사의 기본형이 '날다'로, '날아가다'가 바른 표현이다.*
이승우 기자

신의 실체를 알고 싶으십니까?

이병철 회장의 질문에 대하여

기독교, 천주교, 승리제단에서 답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신의 호흡을 느끼고 신의 생생한 모습과 신의 음성, 신의 목시를 당신은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 삶에 대한 본질적 물음에 대해 신의 혜안으로 풀어진 답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착한 심치는 지옥에 갔을까요? 그러면, 세종대왕은? 이순신 장군은? 이에 대한 답이 이 책에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질문에 답하다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신의 실체를 밝혔다
김상욱 역
해인

● 하나님이 선하다면 재난과 전쟁,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을 왜 방치하는가?

● 지구에 종말이 올까?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부자는 악인인가?

● 사람은 왜 늙고 병들어 죽어야만 하는가?

도서출판 해·인